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업적평가 방안



류태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기술정책과정 경제학 석사·박사
 KIST 기술이전사업센터 연구원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정책팀장

연구의 배경

논문, 특허 및 기술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R&D 성과를 견인하는 데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이 존재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엄격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양한 지원책과 연계함으로써 R&D 성과를 제고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과제평가 시 논문, 특허, 기술이전과 관련된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기술이전 건수가 1,076건(2004)에서 1,580건(2005)으로 증가하여 기술이전율도 18.5%(2004)에서 20.7%(2005)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료 수입이 564.9억(2004)에서 687.3억(2005)으로 증가하여, 연구개발 생산성도 0.85%(2004)에서 1.09%(2005)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당 평균기술료는 52.1백만 원(2004)에서 43.5백만 원(2005), 특허관리 전문역량의 수준은 선진기관 대비 30.9% 수준으로 질적인 동반성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양적 성과만으로 놓고 볼 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가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건당 평균기술료가 낮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직무발명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유망한 기술의 개발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특허관리전문역량이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건당 기술료를 증대하기에 아직은 역량이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듯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반면, 공공부문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R&D 성과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축은 대학 및 공공(연)의 연구자들에 대한 기관 내의 인사고과인 업적평가체계를 들 수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 못지않게 R&D 성과를 견인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는 대학 및 공공(연)의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대학 및 공공(연)의 업적평가기준과 논문-특허-기술이전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업적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효과적인 R&D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논문-특허-기술이전과 관련된 기관 내의 연구와 관련된 업적평가 기준과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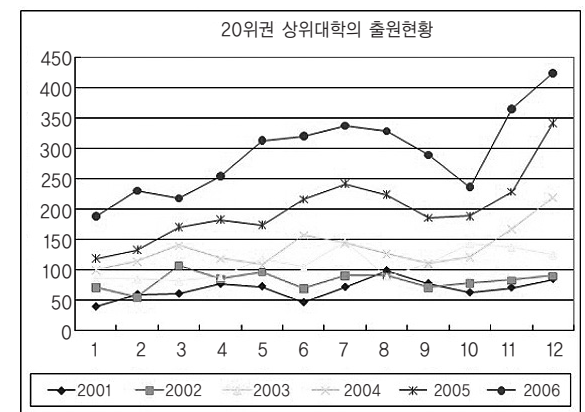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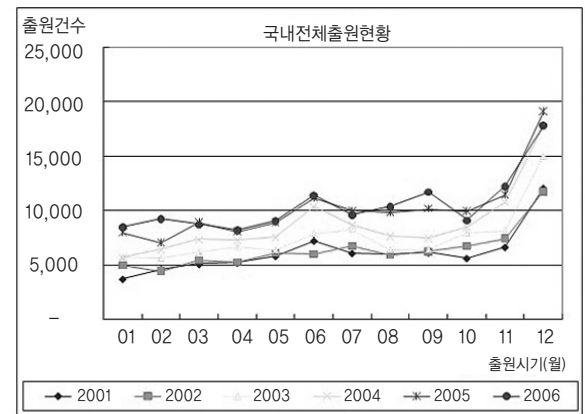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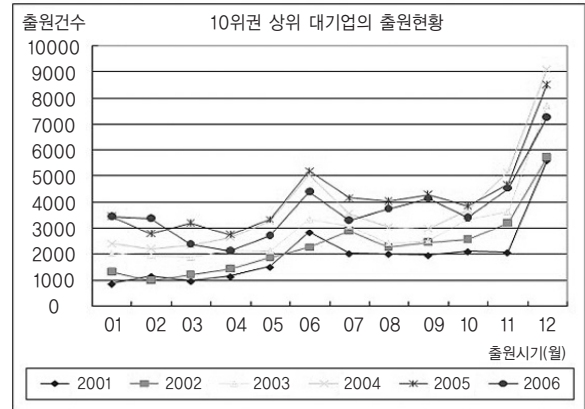
- (1) 현재 업적평가기준에 의한 연구개발성과의 왜곡현상
- (2) 평가기준과 평가기준이 견인하고자 하는 성과 간의 유효성 검증

다음으로는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R&D 성과, 특히 유효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앞의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기관의 상황과 설립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효한 업적평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적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R&D 성과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환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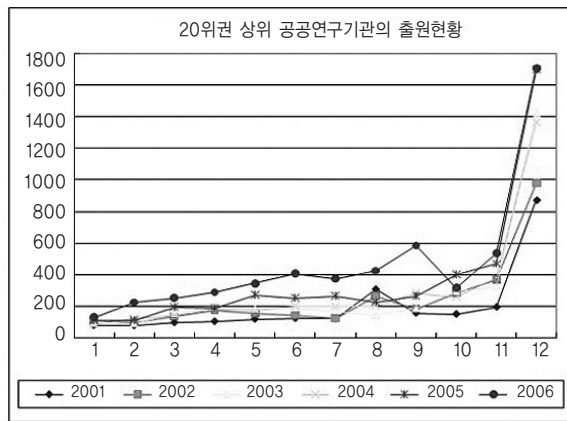
업적평가기준에 의한 연구개발성과의 왜곡현상

최근 6년간('01~'06) 대학, 공공(연)에서 각각 20개 기관, 기업군에서 10개 기관을 중심으로 특허출원 경향을 분석한 결과 매해 연말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4분기와 나머지 분기(1/4분기~3/4분기)의 특허출원 건수를 비교해 보면, 4/4분기가 국내 전체로는 33.3%를 차지하며, 기업(상위 10개 기관)은 37.6%, 대학(상위 20개 기관)은 29.5%, 공공(연)(상위 20개 기관)은 53.1%를 차지하였다. 국내 평균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 때, 상위 10개 기업은 약간 높은 편이며, 대학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며, 공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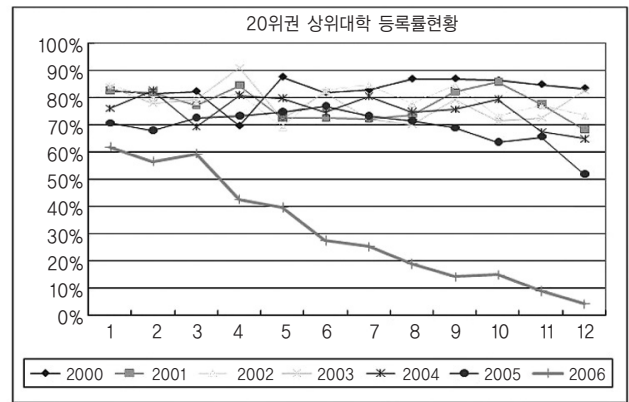
은 매우 높아 4/4분기에 출원되는 특허 건수가 1년 동안 출원되는 건수의 반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연)의 경우 12월만을 비교해 보아도 1년 전체 출원 건수의 35.9%를 차지하고 있어 연말의 편중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1) 여기서 추적 특허 등록물이란 예를 들어 2001년 5월에 출원된 어떤 특허가 2003년 1월에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등록된 시점을 2003년 1월 등록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 아니라 2001년 5월에 통계를 잡아서 그 달의 특허 출원 건수와 특허 등록건수를 바로 비교하여 특허 등록물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잡은 것을 말한다.



〈그림 1〉 국내 기업, 대학, 공공(연)의 특허출원 월별 현황



〈그림 2〉 20개 대학의 월별 등록률 변화('00 ~ '06)

가. 대학의 특허등록률 : 출원기준의 추적 조사 등록률

조사대상인 20개의 대학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월별로 출원된 특허들의 추적 등록률¹⁾을 아래 〈그림 2〉에 정리하였다. 대학의 경우 등록률의 차이가 월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특허 업적평가 만료일이 대학 별로 2월, 6월, 12월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학은 20개 기관 중에서 특허출원에 대해서 업적평가를 하는 곳이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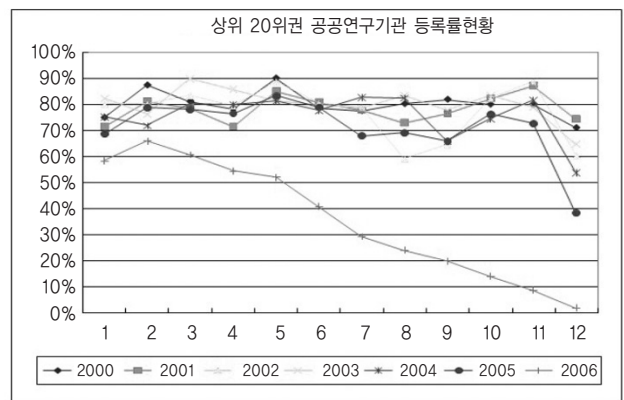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학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특허출원의 연말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 년도에는 연말에 특허출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업적평가가 없었으나, 2004년부터 BK사업의 성과평가에 특허출원에 대한 평가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에 BK사업의 평가를 받기위해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그림 2〉의 등록률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의 등록률에 비해 2004년부터 2005년의 특허 등록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2006년도의 특허 등록률이 매우 낮은 것은 아직 심사 중에 있는 특허출원 건이 있기 때문이다.

나. 공공(연)의 특허등록률 : 출원기준의 추적 조사 등록률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인 20개의 공공(연)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월별로 출원된 특허들의 추적 등록률을 아래 〈그림 3〉에 정리하였다. 공공(연)의 경우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등록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12월의 등록률은 다른 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최근 연도에 들어서는 그 경향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연)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특허등록뿐만 아니라 출원을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림 1〉에서와 같이 연말에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적평가 기간도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특허출원이 연말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특허의 등록률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의 특허 등록률이 매우 낮은 것은 아직 심사 중에 있는 특허출원 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20개 공공(연)의 월별 등록률 변화('00 ~ '06)

업적평가 기간의 만료시점에서의 출원 및 등록

먼저,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으로 잡았

다. 이는 2006년 이후의 경우 아직까지 특허심사가 진행 중인 건이 많아서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석을 위하여 업적평가 기간의 만료시점 직전과 나머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등록률의 경향성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1) 비교기간 1: 업적평가 만료시점 직전 1개월과 나머지 11개월
- (2) 비교기간 2: 업적평가 만료시점 직전 2개월과 나머지 10개월
- (3) 비교기간 3: 업적평가 만료시점 직전 3개월과 나머지 9개월

또한 대학과 공공(연)의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의 경우, 특허출원은 업적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고 특허 등록만을 평가에 반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나, 공공(연)의 경우 특허등록과 함께 특허출원도 평가에 반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2004년과 2005년의 2년간은 BK사업에서 특허출원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대학도 일부 BK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별로 과제성공에 대한 평가를 위한 특허출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였다.

가.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 및 등록률 비교분석

앞에서 연말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의 급증과 이에 따른 특허 등록률의 저하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을 보인 바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보여준 대략적인 경향성인 특허출원의 급증과 이에 따른 특허의 등록률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통계적으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업적평가 기준이 특허의 양적 또는 질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의 기초 환경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은 2개 기관을 제외하고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특허출원을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연)은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특허출원을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2) 앞에서 정의한 비교기간 1, 2, 3으로 나누어 대학과 공공(연)의 출원 건수의 변화와 등록률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

아래 [표 2]은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의 양적 비교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이다.

대학과 공공(연) 모두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으나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전에 특허출원이 나머지 기간에 비해 늘어나는 경

기간별 비교		대학		공공(연)	
		출원 건	등록률	출원 건	등록률
비교 기간 1	직전기간 월평균	7.64건	69.3%	13.12건	75.4%
	나머지 기간 월평균	4.94건	71.3%	5.68건	80.2%
	직전 ~ 나머지기간 평균 차	2.70건	2.0%	7.44건	4.8%
	비유효 특허 출원 건수	1.6건		9.1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
비교 기간 2	직전기간 평균	7.13건	69.5%	9.78건	76.0%
	나머지 기간 평균	4.77건	71.5%	5.60건	80.1%
	직전 ~ 나머지기간 평균 차	2.36건	2.0%	4.17건	4.1%
	비유효 특허 출원 건수	1.6		7.8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
비교 기간 3	직전기간 평균	7.15건	68.5%	8.68건	76.5%
	나머지 기간 평균	4.50건	72.4%	5.51건	80.0%
	직전 ~ 나머지기간 평균 차	2.66건	3.9%	3.17건	3.5%
	비유효 특허 출원 건수	3.1		6.6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

[표 2]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의 양적 비교

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진다.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반영하는 대학과 BK사업에서 2004년부터 특허출원을 사업성과에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표 3]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참고하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반면, 공공(연)의 경우는 특허출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업적평가 만료시점 직전에 특허출원이 나머지 기간에 비해 매우 많이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다. 더욱이 두 기간의 평균 차이가 비교기간 1(7.44건) > 비교기간 2(4.17건) > 비교기간 3(3.17건) 으로 업적평가 만료 직전에 가장 특허출원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허 등록률이 있어서 공공(연)은 예상대로 업적평가 만료시점을 중심으로 등록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두 기간의 등록률 평균 차이가 비교기간 1(4.8%) > 비교기간 2(4.1%) > 비교기간 3(3.5%) 으로 업적평가 만료 직전에 가장 특허 등록률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에 있어서는 특허 출원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등록률의 저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기술이전 업적평가 배점의 특허품질 제고효과 :

특허 등록률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특허를 기준으로 기술이전의 업적평가 배점비율이 높을수록 연구자 1인당 기술이전 건수와 특허의 등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

- (1) 특허를 기준으로 기술이전 업적평가 배점비율에 따른 특허 등록률 : 기술이전에 대한 노력과 특허의 품질제고와의 상관관계
- (2) 특허와 기술이전 업적평가 배점비율에 따른 1인당 기술이전 건수 :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종목적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것과 중간과정 인센티브를 분산해서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함

다음 [표 4]은 특허를 기준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배점비율이 1보다 적은 그룹(그룹 1)과 배점비율이 2보다 큰 그룹(그룹 3), 그리고 배점비율이 1과 2사이의 그룹(그룹 2)에 대해서 특허 등록률과 기술이전 건수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룹 1과 그룹 2의 특허 등록률은 10.46%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

기간별 비교		BK 성과평가 이전 (2000 - 2003)		BK 성과평가 이후 (2004 - 2005)	
		출원 건	등록률	출원 건	등록률
비교 기간 1	직전기간 월평균	3.47건	72.2%	17.61건	57.7%
	나머지 기간 월평균	3.22건	73.8%	11.10건	71.5%
	직전 ~ 나머지기간 평균 차	0.25건	-1.5%	6.51건	13.8%
	월 평균 비유효 특허 출원 건수	의미 없음		2.43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
비교 기간 2	직전기간 평균	3.52건	77.4%	15.85건	62.1%
	나머지 기간 평균	3.19건	73.2%	10.80건	72.1%
	직전 ~ 나머지기간 평균 차	0.33건	4.2%	5.05건	10.0%
	월 평균 비유효 특허 출원 건수	의미 없음		1.59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
비교 기간 3	직전기간 평균	3.81건	76.6%	13.94건	62.8%
	나머지 기간 평균	3.05건	73.3%	10.87건	72.7%
	직전 ~ 나머지기간 평균 차	0.76건	3.3%	3.07건	9.9%
	월 평균 비유효 특허 출원 건수	의미 없음		1.38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

[표 3] BK사업 특허출원 성과평가 이전 vs. 이후의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 및 등록률 비교분석

그룹 1과 그룹 3의 특허 등록률은 18.85%의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룹 2와 그룹 3에 있어서도 특허 등록률은 8.39%의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그룹 1과 그룹 2의 연구자 1인당 기술이전 평균 건수는 0.386건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룹 1과 그룹 3의 연구자 1인당 기술이전 평균 건수는 0.424건의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그룹 2와 그룹 3에 있어서의 연구자 1인당 기술이전 평균 건수는 0.038건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기술이전 건수가 일반적으로 많은 산업기술연구 계열의 공공(연)이 그룹 2에 몇몇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약간의 편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의미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첫 번째, 기술이전 성과관련 업적평가 배점이 높을수록 특허 등록률이 높고,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결국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특허를 양산해야 하므로 특허 품질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허 등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기술이전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품질 좋은 특허를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자에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허를 기준으로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업적평가 배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이 기술이전 성과(연구자 1인당 평균 기술이전 건수)가 높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 성과에 대한 업적평가 배점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업적평가 배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많은 연

구자들이 어려운 기술이전을 한 건 하는 것 보다는 특허 등록을 2건 하는 것이 더 쉽고 업적평가도 잘 받게 되므로 기술이전을 끝까지 추진하기 보다는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특허 등록에 대한 업적평가 배점이 매우 낮거나 또는 없다면, 결국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특허출원, 등록 등이 자신의 업적평가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기술이전을 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의 업적평가가 특허와 기술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을 활성화하고 발명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적평가의 개선방향을 도출해내려고 하였다. 특히, 특허 출원에 대한 업적평가 반영의 여부와 특허와 기술이전의 업적평가 비율에 따른 성과의 견인효과 등을 위주로 분석을 하였다. 몇몇의 결과는 현실에서의 직관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몇몇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특허출원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였을 때, 특허의 양적 증가를 유인하지만 상대적으로 특허의 질적인 측면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효과(trade-off effect)로 인해 특허출원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또는 나쁘다고 선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상충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기관의 전략적 방향이나 특허관리의 발달 단계, 또는 사업의 목적별로 특허출원에 대한 평가 반영 여부와 특허 등록에 대한 상대적 배점의 정도를 잘 조율하여야 특허의 양적 견인과 질적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그룹 간 비교	그룹 1 vs 그룹 2		그룹 1 vs. 그룹 3		그룹 2 vs. 그룹 3	
	그룹 1	그룹 2	그룹 1	그룹 3	그룹 2	그룹 3
평균 특허 등록률	56.04%	66.50%	56.04%	74.89%	66.50%	74.89%
평균 특허 등록률 차이	10.46%		18.85%		8.39%	
통계적 유의미성	○		○		○	
평균 기술이전 건수	0.066건	0.452건	0.066건	0.490건	0.452건	0.490건
평균 기술이전 건수 차이	0.386건		0.424건		0.038건	
통계적 유의미성	○		○		×	

[표 4] 기술이전 업적평가의 특허 등록률 제고 효과 비교분석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충적 효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은 특허의 양적 창출을 견인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허출원을 업적평가에 삽입하고 있지 않고, 반면 조사대상 공공(연)의 경우는 이미 특허의 양적 확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특허 품질의 제고에 힘써야 할 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업적평가가 특허품질의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R&D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의 양적 창출과 함께 질적 제고 또한 중요한 측면에 있으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는 하되 특허 등록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하지만, 현재에는 현실을 반영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적 견인이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기술이전에 대한 업적평가 비율이 높은 기관이 기술이전 성과뿐만 아니라 특허의 품질제고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품질의 특허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구자로 하여금 특허품을 제고하도록 유인하게 되며, 또한 특허관리자로 하여금 출원 및 심사청구 이전에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특허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대한 업적평가는 기술이전과 함께 특허 등록률과 양의 상관관계

를 갖는다. 기술이전의 성과는 특허품질제고 이외에 다양한 활동과 연계되며, 이는 업적평가로 견인할 수 없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전의 업적평가는 기술이전 성과보다는 특허품질의 대리변수인 특허 등록률과 더욱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등록에 대한 업적평가 반영비율보다 기술이전에 대한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기술이전 성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세 번째의 시사점과 연계하면, 결국 기술이전에 대한 업적평가가 특허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에 대한 업적평가 비율을 높이는 것이 특허품질의 제고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성과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연구성과 보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논문중심의 연구문화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자가 기술이전에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업적평가를 초과 상향조정한다면 몇몇 연구자에게만 이롭게 되는 편향된 업적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반발과 제도가 안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반환경 조성과 인식 및 연구문화의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업적평가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발명특허 2008, 5

〈단신〉

발명문화교육연구소 왕연중 소장 국내 과학발명도서 감수 독점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왕연중씨의 국내 과학발명도서 감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주)한국발명특허문화원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도 매년 4~5권의 과학발명도서를 저술하며, 3~5권을 감수하고 있는 왕씨는 금년 들어서만 벌써 3권의 과학발명도서를 감수하여 펴내 이 분야 최고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주)동아 사이언스의 '유레카 박사의 과학편지 발명', 도서출판 한국 헤밍웨이의 '교과서에 나오는 첨단과학 탐구 발명과 발견', 도서출판 글송이의 '퀴즈! 과학상식-발명발견' 등 왕씨가 감수한 과학발명도서는 그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유레카 박사의 과학편지 발명'은 영어로도 발간되었다.

30여 년 동안 모두 101권의 과학발명도서를 집필한 왕씨는 과학발명분야 출판계에서는 '인간국보'라는 호칭까지 붙여 다닌다.

요즘도 소년조선일보(금요일) 등 매월 10여 건의 연재를 하며, 전국순회 강연도 하고 있는 왕씨의 활동내용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왕연중'을 치면 엿볼 수 있다.